

가족 구조에 따른 청소년 비행*

Differences in the Level of Delinquent Behaviors Depending on Family Structures among Adolescents*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 수 유 안 진
강 사 이 점 숙
박사과정 서 주 현

Child and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Yoo An Jin

Instructor : Lee Jum Sug

Doctoral Course : Suh Joo Hyun

☐ 목 차 ☐

I. 서론
II. 연구 방법
III. 결과 및 해석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s in the level of delinquent behaviors depending on family structures among adolescents. The subjects were 552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Seoul and Incheon, of whom 247 were being raised by single-parents and 305 by non-divorced parents. All respondents answered by self-report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t-test, Scheffé test, ANOVA and two-way ANOVA.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s differed by sex and age. High school students tended to be more engaged in violence and status delinquent behaviors than middle school students. Mal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engage in social, sex and property delinquent behaviors than female students.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delinquent behaviors depending on family structures among the adolescents. Mostly, adolescents with non-divorced parents were less delinquent than those with a single parent. Third, among the adolescents from a divorced family, those whose parents had been divorced for 1-2 years had the highest score in sex and property delinquent behaviors.

Corresponding Author: Suh Joo H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College of human ecology, san 56-1, Sillim-Dong, Gwanak-Gu, Seoul, 151-742, Korea Tel: 82-2-880-8752 E-mail: joohyunsuh@hanmail.net

* 이 논문은 2003년도 두뇌한국21 사업 신규분야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주제어(Key Words): 비행(delinquent behavior), 가족 구조(family structure), 이혼 가정 청소년(adolescents from divorced families)

1. 서론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심리적 변화로 인해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자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비행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또한 청소년기는 이전의 아동기에 비해 학업성취 부담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이러한 스트레스가 부적응 및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는 시기이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아동기까지는 자신의 준거집단이 부모였지만 청소년기에는 또래동조성이 높아지면서 준거집단이 점차 또래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행동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이 청소년 시기는 변화와 혼란이 많은 시기이며, 이로 인해 갈등과 부적응을 나타낼 가능성이 큰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적응 중의 하나가 비행이다. 법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의 비행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강도, 살인, 강간, 방화, 공갈협박 등의 법률적 일탈행위와 같이 심각한 정도의 폐해를 불러일으키는 일탈에 한정된다. 그런데 사회적 관점에서의 비행은 무단결석, 가출, 음주 및 흡연, 유흥장 출입, 음란물 시청이나 성행동, 학교폭력 등과 같은 사회생활의 부적응 행동이나 비도덕적인 행동 또는 미성년에게 금지된 행동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이경남, 2002).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발견될 수 있는 비행은 후자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점에서의 비행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비행의 하위영역에 대한 구분은 학자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허인수(1988)는 도덕적 문제행동, 물질적 문제행동, 공격적 문제행동, 음성적 문제행동으로 구분하고 있고, 최상숙(1993)은 가정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등 청소년의 생활영역별로 문제행동을 구분하고 있다. 또한 Lipsey(1999) 등은 대인비행, 재산비행, 공공질서 비행, 피해자 없는 비행, 지위비행, 약물사용 비행으로 나누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행해진 비행 연구에서는 대체로 청소년들이 가담하게 되는 비행을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비행과 같이 폭넓은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곽금주, 신의철, 박영신, 1999). 청소년 비행행동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첫째, 폭력 및 일반지위 비행은 교우들과 싸우거나 학생의 신분엔 맞지 않는 차림을 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장소에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영역에 속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성인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청소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행동이므로 상대적으로 사소한 비행으로 여겨질 수 있다. 둘째, 사회질서 비행은 공공기물 파손과 같이 사회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로 법에 의해 처벌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셋째, 성적 비행은 음란물 시청이나 성행동과 관련된 비행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재산비행은 돈과 관련된 비행으로 돈이나 물건을 훔치거나 갈취하는 행동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청소년의 비행은 당사자의 적응 문제를 야기시킬 뿐 아니라 가족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 시기의 비행은 성인기의 범법행동과도 연결이 될 수 있다(정문자, 송성자, 2001). 최근 학교폭력의 증가로 인해 청소년 비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된 연구(곽금주, 김근영, 1997; 김희화, 김경연, 2000; 남현미, 옥선화, 2001; 배문조, 전귀연, 2002; 유성경, 이소래, 2001; 이경남, 2002; 전귀연, 1998; Barnes & Farrel, 1992; Lipsey & Derzon, 1999; Synder & Patterson, 1987)가 많이 축적되고 있다.

청소년 비행에 관한 선행연구(김희화, 김경연, 2000; 남현미, 옥선화, 2001; 유성경, 이소래, 2001; 이경남, 2002; Barnes & Farrel, 1992; Lipsey & Derzon, 1999)에 따르면 청소년이 표출하는 비행 정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난다. 대체로 청소년의 연령이 높을수록 비행에 더 많이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경우 비행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고정자, 2003; 배문조, 전귀연, 2002; 이경남, 2002; 전귀연, 1998)은 중학교 학생과 고등학교 학생의 비행 정도를 비교할 때, 비행가담 정도가 높게 나오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

을 많이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학교환경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 정도에 따르면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보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비행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곽금주, 김근영, 1997). 그러므로 중학생보다 고등학교 학생의 비행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실업계 고등학생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인가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로 한정하여 학교환경의 영향력을 통제하려고 한다. 또한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비행에 가담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학생의 실제 비행정도는 어떠한지 비행의 하위영역별로 비행정도에 연령차이가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비행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상당수의 연구(고정자, 2003; 김희화, 김경연, 2000; 남현미, 옥선화, 2001; 유성경, 이소래, 2001; 이경남, 2002; 전귀연, 1998; Barnes & Farrel, 1992; Synder & Patterson, 1987)들에 의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행에 더 많이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최근의 학교폭력 현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학생의 비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연구들은 비행 정도에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타나고 있다. 또래괴롭힘 현상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걸로 드러나는 비행과 그렇지 않은 비행의 성차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행의 하위영역을 세분하여 성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비행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변인의 하나는 청소년의 가족환경이다(정문자, 송성자, 2001). 청소년의 비행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 우리는 언제나 비행청소년의 '편부모 가족'이 비행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선행연구(김선미, 1996; 정문자, 송성자, 2001; 정기숙, 1993; 최규련, 1996; 하영희, 김경연, 2003)들도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두 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비행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접하면서 우리는 비행청소년과 한부모 가족의 관계를 찾고자 하며 또한 청소년의 비행과 소위 '가정파탄'의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 즉,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의 비행의 원인이라고 추론한다. 그런데 한부모 가족이 된

이유는 부모의 이혼만이 아니다. 청소년 가족의 경우 한부모의 원인 중에는 사별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제까지 사별가족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또한 청소년의 비행이 가족갈등의 소산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가족갈등이 최고조 상태인 별거 가족의 경우 어느 정도 가족 갈등이 해소된 이혼가족보다 청소년 비행이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여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조를 세분하여 두부모 가족, 사별가족, 이혼가족, 별거가족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되고 있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의 청소년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청소년보다 비행에 더 많이 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체로 한부모 가정은 두부모 가정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 그러므로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비행정도가 높은 것에는 가족지위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가 혼재된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해진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 정도에 관한 연구들은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비행정도가 더 높게 나타난 근본 원인이 부모의 이혼이나 이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지위라고 단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한부모 가정을 세분화하여 이혼 가정, 별거 가정, 사별 가정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여기에 사회경제적 지위를 함께 고찰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의 비행은 적응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모의 이혼 후 경과기간에 따라 적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외국의 선행연구(Barnes & Farrel, 1992; Synder & Patterson, 1987)를 토대로 추론해 보면 청소년의 비행 정도는 동일한 이혼 가정의 청소년에게서도 부모의 이혼 후 경과기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행연구 결과 이혼 후 경과기간이 2년 이상이 된 가정의 부모나 자녀 모두 재적응을 하는 시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이혼 가정의 청소년의 비행 정도가 더 심각하다는 정도만 밝혀졌을 뿐 이혼 후 경과기간에 따른 변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혼 후 경과기간에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이혼 당사자인 부모의 적응에 관한 연구로서 부모의 이혼 후 경과기간에 따른 청소년의 적

응행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가정을 세분화하고 이혼 가정을 다시 경과기간 별로 세분화하여 가족구조와 청소년의 비행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추구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비행은 부모의 감독과 훈육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혼가족 청소년의 비행은 그들을 양육하는 즉, 함께 거주하는 부모의 성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지금까지 외국의 선행연구(Barnes & Farrel, 1992; Lipsey & Derzon, 1999; Synder & Patterson, 1987)에 따르면 자녀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성이 동일한 경우 적응에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핏줄의식과 호주제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이혼가족의 경우 대부분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양육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어머니와 함께 사는 청소년도 늘고 있어 이혼가족 청소년의 비행이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양육하는 부모의 성과 자녀의 성의 일치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행해진 가족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을 고찰한 선행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비행이 단일차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행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지 않고 각 영역의 비행경험 유무를 합산하여 하나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둘째, 가족구조 측면에서도 한부모 집단은 부모의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두부모 가정과 한부모 가정으로 구분하고 이 두 집단의 청소년들의 비행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의 하위집단별로 한 부모가 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정서표출이나 돌출행동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하위집단 청소년들의 비행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한부모 집단과 두부모 집단 청소년의 비행 정도의 차이에 있어서 가족구조에 따른 차이와 두 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한 차이가 혼재된 경우가 많았다. 넷째, 이혼집단의 청소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고 특히 이혼 전에 대부분 거

치게 되는 별거집단의 청소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이혼집단 청소년의 적응이 이혼 후 경과기간, 함께 사는 부모의 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비행도 이러한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부모 가정과 이혼, 사별, 별거 가정의 청소년들이 비행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행의 하위영역을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가정의 소득수준, 이혼 후 경과기간, 양육부모의 성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비행정도(폭력 및 일반지위 비행, 사회질서 비행, 성적 비행, 재산 비행)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비행정도(폭력 및 일반지위 비행, 사회질서 비행, 성적 비행, 재산 비행)는 가족구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이혼가정 청소년의 비행정도(폭력 및 일반지위 비행, 사회질서 비행, 성적 비행, 재산 비행)는 이혼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이혼가정 청소년의 비행정도(폭력 및 일반지위 비행, 사회질서 비행, 성적 비행, 재산 비행)는 양육부모의 성 및 청소년과 양육부모의 성일치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5〉 청소년의 비행정도(폭력 및 일반지위 비행, 사회질서 비행, 성적 비행, 재산 비행)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이 연구에서는 가정구조(이혼가정, 별거가정, 사별가정, 양친가정)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 및 경기도 소재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규모 표집으로 인해 조사기간이 오래 걸렸다. 본조사는 경인 소

재 중학교 6개교 및 고등학교 5개교의 2학년 학생 총 4229명이었다. 이 중에서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 중이거나 사별한 가정의 청소년은 총 247명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부모 가정 청소년 247명과 이혼, 별거, 사별, 재혼 등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 중에서 10%를 무작위 추출한 두부모가 있는 비이혼가정 청소년 305명을 포함하여 총 552명이다.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288명, 여학생이 264명이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은 아래의 표와 같다.

2. 조사도구

1) 비행척도

청소년의 비행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K-CBCL (Achenbach & Edelbrock, 1983의 한국어판)의 비행 척도(문제행동의 유무), 민하영(1991)의 연구 등을 참고

하여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하위 영역별로 청소년의 지위에 맞지 않는 일반지위 비행 및 폭력에 관련된 비행을 측정하기 위한 12문항과, 사회질서를 해치는 사회질서 비행을 측정하기 위한 5문항, 성(性)적 비행과 타인의 사유재산에 해를 입히는 재산 비행을 측정하기 위한 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타당도는 안면타당도로 알아보았다. 아동학 전공자 3인으로부터 청소년의 비행정도 파악에 적합한지와 비행영역의 구분의 적합한지를 자문하여 적합한 것으로 검증을 받았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로 알아보았다. 전체 신뢰도는 .92로 양호하였으며 영역별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1)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응답자의 주관적 인지임.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¹⁾

			빈도(%)		
변 수	집 단	빈도(%)	변 수	집 단	빈도(%)
성 별	남	288(52.2)	학 교	중학교	294(53.3)
	여	264(47.8)		고등학교	258(46.7)
아버지 연령	30대	20(3.6)	어머니 연령	30대	88(15.9)
	40대	442(80.1)		40대	396(71.7)
	50대이상	90(16.4)		50대이상	68(12.4)
아버지 직업	전문직	39(7.1)	어머니 직업	전문직	15(2.7)
	행정, 관리직	42(7.6)		행정, 관리직	8(1.5)
	사무직	122(22.1)		사무직	16(2.9)
	판매, 서비스직	153(27.7)		판매, 서비스직	180(32.6)
	생산직	140(25.4)		생산직	141(25.5)
	무직	36(6.5)		전업주부	162(29.3)
부부재	60(10.9)	모부재	30(5.4)		
아버지 교육수준	중졸이하	72(13.1)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이하	149(27.0)
	고졸	288(52.2)		고졸	302(54.7)
	대졸	103(18.7)		대졸	36(6.5)
	대학원 이상	6(1.1)		대학원 이상	5(1.0)
	모름	83(15.0)		모름	60(10.9)
종 교	기독교	198(35.9)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	54(9.8)
	천주교	84(15.2)		중	257(46.6)
	불교	81(14.7)		하	241(43.7)
	무교	189(35.9)			
가 족 구 조	한부모 이혼	129(23.4)	이혼 후 경과기간	1년미만	15(11.7)
	별거	58(10.5)		1년-2년	15(11.7)
	사별	60(10.9)		2년이상	65(50.8)
	양부모	305(55.3)		미기재	33(37.5)

〈표 2〉 비행 척도의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수	점수범위	Cronbach α
폭력 및 일반지위 비행	1번, 2번, 4번, 6번, 7번, 13번, 14번, 17번, 19번, 20번, 21번, 22번	12문항	12점-60점	.88
사회질서 비행	3번, 8번, 15번, 16번, 18번	5문항	5점-25점	.78
성적 비행	5번, 23번, 24번, 25번	4문항	4점-20점	.73
재산 비행	9번, 10번, 11번, 12번	4문항	4점-20점	.63
	전 체	25문항	25점-125점	.92

3. 조사 절차

1) 예비조사

이 연구를 위해서 서울 소재 남녀공학 중·고교 1개 교씩 총 2개교의 2학년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분석 가능한 연구대상은 130명, 이혼가정 청소년은 13명이었다. 예비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2) 본조사

본조사는 2003년 12월 6일부터 2004년 2월 14일까지 이루어졌다. 조사는 경인소재의 중학교 6개교와 고등학교 5개교에서 이루어졌으며, 학교환경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는 모두 인문계학교에서만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 방법은 연구자가 직접 해당 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응답 방식 등을 간단히 설명한 후 교사의 감독과 지시 하에 조사를 실시하고 질문지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통계방법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와 집단 간 차이

를 검증하기 위한 독립표본 t-검증, 일원변량분석(ANOVA), Scheffé 검증, 이원변량분석(two way-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첫째, 성별과 연령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연령과 성별에 따른 각 영역별 비행점수를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각 영역별 비행점수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각 영역별 비행점수는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폭력 및 일반지위 비행의 경우,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행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F=18.52$, $df=1, 543$, $p<.001$), 폭력 및 일반지위 비행의 경우 고등학생의 비행점수가 중학생 비행점수보다 높았다. 한편, 사회질서 비행($F=29.98$, $df=1, 543$, $p<.001$), 성적 비행($F=7.00$, $df=1, 543$, $p<.01$), 재산 비행($F=11.62$, $df=1, 543$, $p<.001$)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다. 사회질서 비행과 성적 비행, 재산 비행 모두 남학생의 비행 정도가 여학생의

〈표 3〉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 평균

평균(SD)

구 분		폭력 및 일반지위 비행	사 회 비 행	성 비 행	재 산 비 행
연 령	중 학생	15.62(4.67)	5.95(1.73)	4.17(.95)	4.37(.95)
	고 등 학생	17.81(7.24)	6.33(2.84)	4.29(1.36)	4.55(1.37)
성 별	남	16.67(6.31)	6.58(2.62)	4.35(1.43)	4.60(1.38)
	여	16.20(5.41)	5.54(1.55)	4.07(.60)	4.26(.74)

<표 4>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 이원 변량 분석

하위 영역	변동원	지승합	자유도	평균지승	F
폭력 및 일반지위 비행	성 별	9.00	1	9.00	.27
	연 령	627.93	1	627.93	8.52***
	성별 * 연령	2.53	1	2.53	.08
	오 차	18407.15	543	33.90	
사회질서 비행	성 별	141.37	1	141.37	9.98***
	연 령	15.89	1	15.89	3.37
	성별 * 연령	.8.63	1	8.63	1.83
	오 차	2560.16	543	4.72	
성적 비행	성 별	8.49	1	8.49	7.00**
	연 령	2.60	1	2.60	2.14
	성별 * 연령	.14	1	.14	.11
	오 차	658.25	543	1.24	
재산 비행	성 별	14.44	1	14.44	1.62***
	연 령	4.00	1	4.00	3.22
	성별 * 연령	1.79	1	1.79	1.44
	오 차	674.70	543	1.24	

*** p<.001, ** p<.01

비행 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가족구조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

시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행정도는 <표 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이 속한 가족 구조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비행의 하위 영역인 폭력 및 일반지위 비행, 사회질서 비행, 성적 비행, 재산 비행이 모

<표 5> 가족 구조에 따른 청소년 비행

비행 구분	가족구조 구분	사례수	평균(SD)	F값	Scheffé 검증
폭력 및 일반지위 비행	두부모 가정	305	15.30(4.63)	10.08***	a
	사별 가정	60	18.28(9.25)		b
	이혼 가정	128	17.20(5.89)		b
	별거 가정	58	18.83(6.15)		b
사회질서 비행	두부모 가정	305	5.76(1.58)	6.53***	a
	사별 가정	60	6.88(3.91)		b
	이혼 가정	128	6.18(2.20)		ab
	별거 가정	58	6.72(2.59)		b
성(性)적 비행	두부모 가정	305	4.12(.93)	4.17**	a
	사별 가정	60	4.32(1.46)		a
	이혼 가정	128	4.19(.73)		a
	별거 가정	58	4.67(1.97)		b
재산 비행	두부모 가정	305	4.30(.91)	5.09**	a
	사별 가정	60	4.80(1.84)		ab
	이혼 가정	128	4.48(.77)		b
	별거 가정	58	4.72(1.66)		b

*** p<.001, ** p<.01

두 가족 구조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먼저, 폭력 및 일반지위 비행의 경우, 가족 구조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F=10.08, p<.001$), 별거 가정 청소년의 비행이 가장 높았으며, Scheffé 검증 결과, 별거 가정과 사별 가정, 이혼 가정 청소년이 두부모 가정 청소년보다 폭력 및 일반지위 비행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질서 비행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여 가족 구조별 청소년의 비행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53, p<.001$). 사별 가정 청소년의 비행 정도가 가장 높았고, Scheffé 검증 결과, 사별 가정과 별거 가정 청소년이 두부모 가정 청소년보다 사회질서 비행 성향이 유의하게 높았다. 성적 비행 성향도 가족 구조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F=4.17, p<.01$), 별거 가정 청소년의 성적 비행 성향이 가장 높았다. 이는 두부모 가정, 사별 가정, 이혼 가정보다 유의하게 높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서 다른 가족 구조의 청소년보다 별거 가정 청소년의 성적 비행 성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재산 비행의 경우, 역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5.09, p<.01$). 구체적으로는 사별 가정 청소년의 비행 성향이 가장 높았으며 사별 가정과 별거 가정의 청소년이 비이혼 가정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재산 비행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혼 가정의 청소년의 비행정도가 부모의 이혼 후 경과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혼가정의 경우, 이혼가정 청소년의 비행 성향은 이혼 후 경과기간에 따라 성적 비행과 재산 비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6>과 같이, 성적 비행의 경우 부모의 이혼 경과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가정의 청소년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가장 비행 성향이 높았다($F=3.04, p<.05$). 재산 비행 역시 이혼 경과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가정의 청소년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가장 비행 성향이 높았으며($F=7.84, p<.001$), Scheffé 검증 결과, 부모의 이혼 경과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가정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이혼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2년 이상인 청소년보다 재산 비행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혼 가정 청소년의 양육부모의 성이나 양육 부모와 청소년의 성일치 여부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 성향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섯째,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한 지표인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비행 성향의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 가족구

<표 6> 이혼 후 경과기간에 따른 이혼 가정 청소년 비행

비행 구분	경과기간 구분	사례수	평균(SD)	F값	Scheffé 검증
폭력적 비행	1년 미만	15	18.20(1.37)	1.79	
	1년 이상 2년 미만	15	9.40(1.53)		
	2년 이상	65	16.42 (.76)		
사회질서 비행	1년 미만	15	6.53 (.58)	.16	
	1년 이상 2년 미만	15	6.13 (.45)		
	2년 이상	65	6.18 (.30)		
성적 비행	1년 미만	15	4.20 (.14)	3.04*	a
	1년 이상 2년 미만	15	4.56 (.34)		b
	2년 이상	65	4.10 (.04)		ab
재산 비행	1년 미만	15	4.47 (.19)	7.84***	a
	1년 이상 2년 미만	15	5.19 (.29)		b
	2년 이상	65	4.37 (.07)		a

*** $p<.001$, * $p<.05$

조 및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이혼경과기간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 정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그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표출되는 비행 수준이 다르다. 즉,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폭력 및 일반지위비행을 더 많이 표출했으며, 나머지 영역에서는 연령에 따른 비행정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같은 연령을 대상으로 고찰하여 고등학생의 비행점수가 더 높다고 한 이경님(2002)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시기에 비행행동이 증가한다는 연구(김현숙, 1998; 궤극주, 문은영, 1993; 이은아, 정혜정, 2000)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처럼 고등학생의 비행이 중학생의 비행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학업성취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등학생들이 학생에게 금지된 유흥장에 가는 일이 더 많고 여기에서 음주나 흡연 등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비행인 폭력 및 일반지위 비행의 경우 연령차이가 나타나지만 보다 더 정도가 심한 성비행이나 사회질서 비행, 재산비행의 경우 연령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의 청소년 비행가담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통계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중학생의 경우 자아정체감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시기로 이들의 비행은 더 큰 문제를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행영역별로 연령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온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비행의 영역을 구분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비행의 하위영역을 구분한 본 연구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비행행동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상대적으로 경미한 폭력 및 일반지위 비행은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회질서 비행, 성 비행, 재산비행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비행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남학생의 비행 가담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고정자, 2003; 남현미, 옥선화, 2001; 유성경, 이소래,

2001; 이경님, 2002)와 일치하는 것이다. 남학생의 비행행동이 여학생의 비행행동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실제로 성차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지만, 응답상의 문제일 수 있다. 즉, 질문지 연구법의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항목에 응답할 가능성이 큰데, 특히 그러한 경향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다. 즉, 여학생의 경우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을 의식하여 실제보다 적게 응답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경미한 비행인 폭력 및 일반지위 비행에서만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요즘 학생들은 학생신분에 걸맞지 않은 옷차림을 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유흥장소에 가는 것이 비행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줄었기 때문에 남녀 모두 높게 응답하여 성차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모범생이라는 뜻을 가진 '범생'이 부정적으로 지각되는 최근의 풍조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실제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비행행동이 더 높을 가능성도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충동통제 능력이 더 낮으므로 남학생들의 비행행동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남학생들의 경우 어느 정도의 폭력 사용을 묵인하고 폭력을 사용하거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이 '남자다운'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또래가치 때문에 남학생의 비행행동이 여학생의 비행행동보다 더 많이 표출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청소년들의 상담이나 교육과정 중에 자신의 즉각적인 욕구를 지연시킬 수 있는 충동통제 및 자기통제 프로그램과 가치관 확립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가족구조에 따라 청소년의 비행정도가 다르다. 특히 두부모 가정 청소년의 비행 수준이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비행 수준보다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비행이 일반 가정의 청소년 비행보다 더 높다는 선행연구(김선미, 1996; 김영희, 김운주 박경옥, 이희숙, 김창기, 2000; 양돈규, 1997; 정문자, 송성자, 2001; 정기숙, 1993; 최규련, 1996; 하영희, 김경연, 2003)의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가 부양과 양육의 부담을 혼자서 감당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훈육에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이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청소년의 생활을 모니터링할 시간

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의 감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한부모 가정 청소년들의 비행행동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청소년의 비행이 부모의 이혼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이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한부모 가족이 되면서 훈육과 생활감독의 소홀함이 발생하고 이러한 점들이 가족구조 자체보다 더 큰 문제가 된다고 추론된다. 이는 이혼 가정 청소년의 비행점수가 두부모 가정 청소년의 비행점수보다는 높지만 사별 가정 청소년의 비행점수보다는 높지 않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특히하게 사회 질서 비행과 성적 비행 및 재산 비행에서 사별가정 청소년의 비행점수가 제일 높게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사별가정 청소년의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의 부재가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다른 가정의 청소년보다 훈육공백과 부모의 모니터링 공백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에 비행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이혼 가정의 청소년의 비행행동이 별거 가정 청소년의 비행행동보다 더 적게 나타났다. 이는 별거 가정의 경우 아직 가족간의 불화나 갈등이 진행 중인데 반해, 이혼 가정의 경우 부부간의 갈등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라고 보여지므로 부부간의 갈등이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싸우는 두부모 가정보다 갈등 없는 한부모 가정이 자녀에게 더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볼 때 부모교육을 통해 한부모 가정의 부모들에게 훈육과 자녀 생활에 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방법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장하여 한부모 가정의 부모들이 가정 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나 사회에서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의 훈육과 생활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언니·형 프로그램'을 정착시켜서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이 고민과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셋째, 이혼집단 청소년의 비행 정도는 이혼 후 경과 기간에 따라 다르다. 모든 영역의 비행에서 부모의 이혼 후 경과기간이 2년 이상인 청소년의 비행이 가장 낮

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이혼 후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 나타났으며, 이혼 후 경과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비행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나 자녀 모두 이혼 후 2년 정도의 경과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혼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 적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외국의 선행연구(Keith, 1991; Kerr & Stattin, 2000)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혼직후인 1년 미만의 청소년보다 1년 이상 2년 미만의 청소년의 비행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의 이혼후 부모의 훈육에 공백이 생기고 이혼의 공백이 청소년의 비행으로 표출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청소년을 양육하는 부모의 성이나 가족의 소득수준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에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일반청소년들로 한정되고 있어 실제 연령차이보다 적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즉,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나, 학교를 중퇴한 학생들의 비행행동이 더 심각하고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을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의 비행정도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연령에 따른 차이가 실제보다 적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집단의 청소년들을 표집하여 좀더 실제에 가까운 표본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혼 가정의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이혼 후 경과기간이 2년 이상의 표본이 대다수이므로 부모의 이혼에 따른 적응의 어려움 특히 비행행동 표출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가 학령기, 특히 중·고등학교 시기에는 학업에 방해될 것을 염려하여 이혼을 보류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자녀가 어린 시기에 이혼을 하여 이혼 후 경과기간이 오래 지난 표본이 많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혼은 이혼 후 초기 적응 기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혼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이혼 후 초기 적응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수의 질적 연구를 통해 이들의 적응 양상을 알아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

서는 청소년 비행에 관한 자료를 청소년들의 자기보고 설문지를 통해 수집하였는데 청소년들이 자기노출을 꺼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와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방법의 다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K-CBCL을 참고로 하여 구성한 비행척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척도는 비행의 경험유무만 밝히고 있어서 비행의 경중이나, 경험 빈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비행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규모 표본을 사용하여 비교적 많은 수의 한부모 가정을 비교 분석하여 부모의 이혼자체보다 훈육의 부재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고, 청소년의 비행이 각 영역별로 달리 나타남을 보여주어 비행영역 세분화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참고문헌

- 고정자(2003).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121-143.
- 곽금주, 김근영(1997). 자기지각 검사에 의한 자기개념 연구 (II): 자기가치감과 우울 및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1), 15-26.
- 곽금주, 김의철, 박영신(1999). 한국 청소년 문화의 형성요인 탐색: 비행과 우울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5(1), 111-121.
- 곽금주, 문은영(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발달)*, 6(2), 29-41.
- 김선미(1996). 가족관계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김운주, 박경옥, 이희숙, 김창기(2000).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의 일탈행동 예방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49-169.
- 김현숙(1998).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 요인에 관한 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김희화, 김경연(2000).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5), 15-24.
- 나유미, 임현진(2003). 자녀의 일상행동에 대한 부모의 관리와 청소년의 일탈행동,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4(3), 87-98.
- 남현미, 옥선화(2001).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통제력 및 친구특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7), 37-58.
- 도금혜, 최보가(2002). 청소년의 인기도에 따른 사회 중심성과 반사회적 행동 특성. *대한가정학회지*, 40(10), 87-102.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문조, 전귀연(2002). 청소년의 가출충동과 관련된 특성 연구: 개인, 가족, 학교환경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0(1), 23-45.
- 양돈규(1997).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성경, 이소래(2001). 청소년 비행수준에 따른 위험요소 및 보호요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187-205.
- 이경남(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91-206.
- 이경남, 하연미(2004). 청소년의 인터넷관련 비행과 관련변인간의 경로분석모델. *대한가정학회지*, 42(5), 127-143.
- 이은아, 정혜정(2000).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비행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3(2), 1-12.
- 전귀연(1998). 가족구조환경, 물질주의 및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3), 87-103.
- 정기숙(1993). 소년비행의 동향과 가족병리와의 관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 143-1553.
- 정문자, 송성자(2001).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모형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9(12), 239-251.

- 정영숙, 김영희, 박경옥, 이희숙, 채정현, 이종섭(1999). 청소년과 생활환경: 생활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2), 175-197.
- 진명희, 오익수, 김진희(1996). 청소년 비행화과정 연구. *청소년 연구*, 91-113.
- 최규련(1996). 가족학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문제와 대책. *대한가정학회지*, 34(10), 147-160.
- 하영희, 김경연(2003). 청소년의 도덕적 금지행동과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1), 17-30.
-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Barnes, G. M., & Farrell, M. P. (1992).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rinking, delinquency,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1), 119-132.
- Baumrind, D. (1991). Effective parenting during the early adolescent transition. In P. A. Cowan & E. M. Hetherington (Eds.), *Advances in family research* (Vol. 2). Hillsdale, NJ: Erlbaum.
- Keith, T. A. (1991). Parenting involvement and achievement in high school. In S. B. Silivern, *Advanced in reading/language research* (Vol. 5, pp. 125-141). Greenwich, CT: JAI Press.
- Kerr, M., & Stattin, H. (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 366-380.
- Lipsey, M. W., & Derzon, J. H. (1999). Predictors of violent or serious delinquency in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In R. Lober & D. P. Farrington (Eds.), *Serious and violent juvenile offenders*. (pp. 86-105).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Shagle, S. C., & Barber, B. K. (1993). Effects of Family, marital, and parent-child conflict on adolescent self-derogation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1(1), 964-974.
- Snyder, J. J., & Patterson, G. (1987). *Family interaction and delinquent behavior*. In H. C. Quay(Ed.) *Handbook of Juvenile Delinquency*. NY: Wiley, 216-243.

(2005년 4월 30일 접수, 2005년 8월 30일 채택)